

건강 칼럼

봄철 황사와 생활 건강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봄꽃이 만발하는 4월이다. 이 시기에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봄꽃 행사가 열리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런 야외 축제의 불청객 황사도 찾아오는 계절이다. 황사 현상은 동아시아의 사막지대나 황토지대로부터 강풍에 의해 대기 중으로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이다. 심할 때에는 하늘이 황갈색으로 보이고 햇빛이 흐려지며 노출된 지면이나 지물에 흙먼지가 쌓이는 수도 있다. 간혹, 민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발원지에서 배출되는 황사량을 100으로 본다면 30%가 발원지에서 다시 가라앉고, 20%는 주변지역으로 수송되며, 50%는 한국, 일본, 태평양 등으로 장거리 수송된다. 황사를 감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기상위성의 영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황사가 발생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위성영상의 시간별 분석을 통해 황사의 분포 강도, 이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황사 관측에는 PM10이라는 장비가 활용되고 있는데,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김성현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약 30군데에 설치돼 있으며, 황사의 이동경로인 중국에도 설치돼 있어 황사 이동경로의 실시간 농도, 변화량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기상관서에서는 황사에 의한 대기 혼탁 정도, 발생 시작 시각, 강도, 종료시각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황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관측된다. 이렇게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부산, 울산,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황사 발생일수는 연평균 약 5일 정도이다. 기상청은 황사로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황사주의보를 발표하고,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예상되면 황사 경보를 발표한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함께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또한 농작물, 활엽수 기공을 막아 생장에 장애가 되며, 반도체 등 정밀산업, 항공기엔진 손상 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산성비,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고,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를 제공해 생물학적 생산력 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면도 있다. 올해에도 찾아오는 황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황사 발생 시의 생활안전 수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황사 현상이 심하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부득하게 외출 시에는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여 황사의 흡입을 최소화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는 황사가 생활공간인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황사가 집안에 유입되었다면 황사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북서쪽 문보다는 남동쪽의 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셋째는 개인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먼저 수분을 자주 섭취하여 호흡기와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샤워 등을 통하여 신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나물 등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신속한 증상에 대한 대처이다. 황사가 심한 날은 인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므로 내 몸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기상청에서는 황사를 포함한 위험 기상에 대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기상정보, 국민행동요령에 대하여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특히, 예보의 특보현황과 국민행동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꽃이 만발한 4월을 맞이하여 기상청과 함께 즐거운 봄철 야외활동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독자제언

소중한 한표 행사 · 깨끗한 선거 되길

4월 13일 다음 주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각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공약을 외치고, 그들의 자녀들마저 후보자의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는등 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이럴때일수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당관계자, 유권자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 1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3대 선거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포 살포 혐음 제공, 후보자계수 등 돈 선거 사범, 둘째, 허위사실유도, 후보자가 비방등 거짓선거사범, 셋째,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기회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사범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 살포한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가까운 선관위나 전화 1300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응제공을 받든 자는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며 절대로 불법적인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깨끗하게 해야 하며, 후보자들의 거짓공약을 가려내고 자신의 소신에 맞게 소중한 한표를 투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중한 한표한표가 모여,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오는 4월 13일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혁신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연인 '데이트 폭력' 강력범죄 씨앗 될 가능성 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연인 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90% 이상이 약자인 여성이고,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죄질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정관계 동영상 인터넷 유포 하겠다 '민나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는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하는 것을 비롯해 집으로 찾아가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잦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총동조절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그동안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남녀 당사자

간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온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이후에 사법처리 하는 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가정폭력은 특별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만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폭력 범죄로 분류해 솥망망이 처벌에 그쳤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체포 후 격리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살인 등 강력범죄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해자의 신체자유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강욱 정읍경찰서 교부파출소장

사설

익산의 백제 유적 특화 사업

전북도가 익산 백제의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특화사업을 말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도 이제 2년이 되었으니 적절한 언급이다. 사실이치욕심대로 말하자면 오히려 만시지탄을 말해야 할 판이다. 등재 이전에 사업을 벌이거나 등재와 함께 일을 벌였어야 했다는 게 도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이니 말이다. 전북도가 익산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말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등재 이후 내놓았던 계획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추진방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날 본보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을 때도 역동적인 사업을 주문했었다. 백제의 왕도로 공주와 부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익산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익산의 유적이 공주와 부여의 그것 못지않게 역사적 근거

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북도가 백제 유적 특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전북도는 계획대로 사업들을 무난히 진척시켜야 한다. 내년까지 익산미륵사지석탑의 복원시킴기로 했으므로 우선 그것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 왕궁리 유적을 발굴하는 것이며 2025년까지 도읍지의 유적을 온전히 복원해 내는 작업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있을 백제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세계유산 확장 등재 때 익산토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열심히 뛰어야 한다. 특화 추진을 공표한 이상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백제의 역사유적 지구가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면 경제적 실익이 매우 클 터이다. 그걸 내다보고 힘차게 뛰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봄철, 농가의 현실에 관심 가져야

봄철을 맞아 농가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와 군에게 주는 당부이다. 전국에서 최고의 농도라는 명성이지만 그게 말뿐이다. 전혀 실속이 없는 것이다. 농민들은 그 같은 표현에 달가워하는 모습이 아니다. 농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다. 빛보다는 어두운 그림자 쪽이 훨씬 진하다. 지금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 아니다. 농촌의 현실을 도의시키고서는 향토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발전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미래 또한 어두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촌의 밝은 부면만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게 아니다. 연 수입 1억이 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 농촌의 어두운 현실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 도내에는 아직도 소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이 대다수이니 말이

다. 거둬 강조해 말하거나 도내에는 부농보다는 빈농들이 더 많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던 바이지만 요즘도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전북의 농업 경쟁력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그게 이유 중 하나라던 하나이다. 물가 오름세가 분명한 요즘들어서도 여전히 일인지 도내농산물 값은 예전 시세 그대로이다. 도내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 남답이 안되는 현실이다. 전북도와 각 시와 군이 농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다. 도내 거주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은 전북도의 오랜 고민거리이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지역을 보면 빈집이 태반인 동네도 아주 없는 게 아니다. 전북도와 농정 관계자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그래서 이번 봄과 여름에는 실제로 무언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